

EEJ! STORY

A story about Gowol City where peace and crime coexist

CHAPTER. 1

경기도 고월시, 급격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부흥한 신도시였지만, 성장이 끝나기 무섭게 찾아온 침체로 짧은 시기에 흥망성쇠를 겪은 파란만장한 도시. 마음이 피폐했던 고월시의 몇몇 청년들은 뛰어난 리더십과 더불어 싸움 실력까지 갖춘 권철을 필두로 하여 고월연합당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세상에 반감을 드러낸다. 창설 초기에는 친목 모임에 불과했지만 점차 과격해졌으며 폭력 사건을 몰고 다녔다. 현대인답지 않게 무술에 심취해있던 권철은 이러한 흐름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들인 권시현에게도 어린 시절부터 격투기를 가르치며, 자신의 만든 폭력 조직의 미래를 그릴 정도로 빠져들게 된다. 그러나 연합당의 조직원이 많아질수록 그들은 폭력 뿐만 아니라 경제나 정치로도 영향력을 미치려 했으며, 권철은 새로운 힘에도 눈독을 들였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폭력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던 권시현은 다른 권력에 더 몰두하는 아버지에게 실망하고,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버지와 의절한 채 해외로 떠나 용병으로 활동한다. 하지만 뼈뿔어진 가르침 속에 자란 권시현의 평화는 지나친 폭력을 수반했고, 10년 간 수많은 활약을 해왔음에도 명예롭지 못한 전역을 하게 된다. 찾아갈 사람도 없었던 그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고월시로 돌아온다. 오랜만에 찾아온 고향은 이전과는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고, 권철에게 훈련을 받던 시절 알고 지내던 동생 조다정에게서 연합당의 상황을 전해듣는다. 고월연합당은 이전보다 규모가 커졌으면 암암리에 고월시의 일부로 안착해 있었다. 한편, 이전부터 고월연합당을 소탕하고자 버리고 있던 경찰 이지태는 목적을 위한 팀을 만들던 중 권시현의 전역 및 귀국 소식을 접한다. 어떤 계기를 느낀 그는 권시현에게 팀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고월시에는 연합당의 영향을 받거나 연합당을 사칭하는 건달 무리가 더러 있었고, 조다정과 함께 이들을 처치하던 권시현은 이지태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권시현은 아무것도 모르고 평화롭기만 한 고월시의 겉과, 신념도 없는 불순한 무리가 우글거리는 고월시의 속을 모두 고쳐주겠다고 다짐한다. 이지태는 그런 다짐이 실상은 자신이 폐기 처분된 무기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와 독선의 화살을 고월시로 돌리는 것일 뿐이라고 냉소한다. 서로 속내를 드러내지 않은 둘은 각자의 목적을 위해 손을 잡는다.

CHAPTER. 2

권시현은 정식으로 이지태가 만든 태스크포스 이이제이의 소속이 되었다.
권시현은 이이제이의 본부로 향하는 길에서,
이지태에게 아버지이자 고월연합당의 보스가 현재 실종 상태란 것을 전해 듣는다.
권시현은 연합당의 뿌리를 뽑아내다 보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직감한다.
그러고는 연합당을 직접 몰락시키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정의와 힘이
훨씬 순수하고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이제이 팀 본부에 도착한 권시현은 팀장 박호종과, 팀원 서준갑과 신주하를 만난다.
팀원을 소개받고, 권시현은 현재 연합당의 현황을 브리핑받는다.
보스가 사라진 지금, 연합당은 폭력으로 집결한 김훈구의 훈구파와
돈과 사업으로 뭉친 유성록의 성록파로 양분되었다.
두 세력의 직접적인 충돌은 모순적이게도
점조직이었던 연합당의 세력 구도를 명확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지태는 보스의 아들인 권시현을 미끼로,
대외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유성록에게 먼저 접근하여
함께 훈구파를 처치한 뒤 권시현을 신뢰하는 성록파 역시 정리하자는 작전을 세운다.
하지만 권시현은 자신이 싫어하는 부류인 유성록과 친한 척하는 게 싫다며 작전을 거절한다.
대신 훈구파의 일원인 조다정을 통해 훈구파를 찾아가 그들을 처리하고
유성록이 직접 찾아오도록 하는 작전을 선언한다.
이지태가 조다정을 신뢰할 수 있는지, 성록파가 낚새를 알아채고 숨을 가능성 등
의문을 제기하지만 권시현은 조다정은 적어도 연합당에 관해서는 거짓이 없다고 일축한다.
추가로 연합당 같은 폭력조직의 세력이 그림처럼 양분됐을 거라 믿는 것이
오히려 학생같은 순진한 믿음이고,
훈구파 안에도 분명 유성록과의 연결점이 있으리라 일방적으로 주장한다.
처음부터 뼈격대는 둘이었지만,
조다정의 정보가 기대 이상으로 쓸만했던 덕에 수사가 진전된다.
훈구파에게 협박을 받은 피해자를 알아낸 이이제이 팀은
그를 통해 훈구파의 사업체 중 하나인 고문 외주 시설을 찾아낸다.

CHAPTER. 3

고월시의 고가도로 밑 수풀 속,
인적이 거의 오가지 않는 어느 곳에는 고문을 목적으로 세워진 작은 방이 있었다.
그곳의 존재는 물론, 김훈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그곳을 거친 사람들도 흑막에 김훈구가 있을 것이라고 감히 입에 올리지 못했다.
이지태와 서준갑이 해당 시설을 조사할 때는 유성록의 부하들이 간혀 있었다.
김훈구는 고월연합당의 새로운 보스가 되기 위해 자신의 편이 될 사람을 포섭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본보기로 만들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지태는 이들을 통해 김훈구가 권시현이 권철의 아들이고,
이미 고월시에 들어와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다.
한편 권시현은 조다정의 도움을 받아 훈구파의 본거지로 잠입한다.
훈구파 내부에는 뛰어난 수완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성록파에 대한 열등감과
구시대적 폭력에만 의존하는 김훈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었다.
조다정이 이들과 말다툼을 하는 사이 권시현은 훈구파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유성록 산하의 청부업자 구필립과 처음으로 만나게 되고 결투에 들어선다.
권시현이 승리하고, 김훈구까지 찾아오자 구필립은 물러선다.
김훈구는 권시현이 권철의 아들임을 깨닫고 우호적으로 변한다.
그는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권시현을 통해 정당성을 얻고자 그에게 손을 건넨다.

CHAPTER. 4

김훈구는 자기 파벌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상징적인 사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유성록의 핵심 사업체에 폭탄 테러를 함으로써 성록파의 기반을 흔들 생각이었다. 심지어 익명의 조력자로부터 받은 아이디어로 사업체의 주식을 대량으로 공매도하여, 테러로 인한 회사의 주가 폭락을 통해 이익을 얻을 계획이었다. 김훈구는 경험 많은 용병 출신인 권시현이 폭탄 설치를 도와주기를 원했다. 권시현은 이지태에게 이 계획을 전달하며, 폭탄을 터뜨린 다음에 그 구실로 훈구파를 잡아들이자고 제안한다. 이지태는 당연히 폭탄이 터지기 전에 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이번에는 이지태의 의견에 힘이 실린다. 훈구파의 조직원과 권시현이 유성록 산하의 회사에 위장 취업한 뒤, 외부에서 퀵 서비스 등으로 위장한 운반차를 통해 폭탄을 곳곳에 설치하는 작전을 실행한다. 하지만 권시현이 짚어준 장소에는 이미 EEJ 팀을 비롯하여, 이지태가 배치해둔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훈구파 일당은 순식간에 제압된다. 계획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김훈구는 권시현을 찾지만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은 이지태였고, 사투 끝에 체포당한다. 하지만 공매도를 하기 위해 조직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오다가 결국 막대한 손해를 입은 김훈구는 체포 도중에 부하의 손에 살해당한다. 이들은 성록파의 밑으로 들어가고 이지태에게는 살인 예고 편지가 도착한다.

CHAPTER. 5

유성록은 광고도 촬영할 정도로 저명한 인사다.
때문에 고월연합당 활동 역시 비공개적으로 하며,
성록파라는 파벌의 이름도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다.
한편, 다 잡은 김훈구가 죽어서 화가 난 이지태는 김훈구를 살해한 조직원을 추적해서
유성록에게 그들의 신변을 요구할 생각이었다.
권시현 역시 존재가 드러난 데다가,
경찰과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어서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했다.
하지만 유성록에게 가장 먼저 다가간 것은 조다정이었다.
김훈구 사망의 내막을 모르던 그는 그 배후에 유성록이 있으리라 짐작하고
성록파 거점으로 찾아갔다.
성록파의 고월시 상류층을 상대로 설전을 펼치고,
의외로 우위를 차지한 조다정은 그대로 유성록과 만나게 된다.
한편 유성록에게 접근할 계획을 짜던 이지태는 구필립과 그 수하들을 만나 위기에 처한다.
서준갑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벗어나고 그의 격려를 통해 팀원과 다시 협력하기로 한다.
이후 이지태의 달라진 태도와 부탁으로 마음이 움직인 권시현이
원래 계획대로 유성록에게 접근하기로 한다.
유성록과 만난 권시현은 그가 성록파 조직원에게 두들겨맞은 조다정을
병원에 보낸 뒤 치료비를 대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유를 묻자, 유성록은 자신이 바라는 것은 고월시의 평화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연합당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고월시 가장 큰 범죄 조직인 연합당을
내부에서 부터 흔들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권철이 사라지고 훈구파 세력이 자기 밑으로 들어온 지금,
조만간 연합당을 해산하고 건전한 사교 모임을 다시 만들고자 한다고 말한다.
또한 유성록은 권시현이 경찰과 협력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자신과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끼리 협력해도 좋다며 손을 내민다.
하지만 권시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둘러대고 자리를 벗어난다.
유성록이 빈틈을 보이지 않자, 결국 EEJ는 신주하가 유성록의 집에 잠입하여
구필립 사주 등 직접적인 범죄 증거를 포착한다는 강수를 두기로 한다.

CHAPTER. 6

권시현은 신주하의 경호원으로 함께 움직이며,
유성록의 집에서 나오는 구필립의 사진 등 증거를 모은다.
보다 결정적인 증거를 위해 유성록의 집, 깊은 곳까지 잠입한 신주하는
범죄자들의 연락처가 적혀있는 장부를 발견하고,
유성록이 훈구파의 움직임을 지켜봐왔던 사실도 알게된다.
나아가 유성록의 진정한 목표는 조다정과 훈구파의 세력을 비롯한 연합당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권력과 폭력, 안과 밖의 힘을 가지는 것임을 파악한다.
한편 근처에서 대기하던 권시현은 구필립이 유성록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한다.
권시현은 즉시 유성록의 집으로 들어가 구필립과 싸운다.
치열한 싸움 끝에 권시현은 승리하지만, 그 순간 집에 불이 붙는다.
권시현은 기절한 신주하와 구필립을 데리고,
불을 지른 연합당 직원들과 사투를 벌인 끝에 간신히 탈출한다.
이후 신주하는 병원으로 옮겨지고, 구필립은 EEJ 사무실로 끌려온다.
그곳에서 구필립은 부모에게 버려져서 외국에서 나고 자라다가,
그 흔적을 찾아 한국으로 들어온 자신의 과거를 얘기한다.
부모로 짐작되는 사람은 이미 죽었고,
돌아갈 돈이 없어서 한국에서 머물던 그는 외국인 취업 비자 기간이 끝나가던 중
유성록의 도움으로 정식으로 한국으로 이민오게 되었고, 그의 부하가 되었다.
하지만 여자까지 상처입히고 온갖 더러운 일에 쓰이다 버려지는
자신에게 환멸이 난 구필립은 EEJ에게 협력을 약속한다.
유성록은 연합당이 아닌 상류층을 견제하며, 때때로는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유성록의 뒷모습을 알고 있으면서,
유성록의 사업을 홍보하는 유튜브 채널의 바이럴 마케팅과 편집을 담당하던
구필립은 EEJ의 도움하에 유성록의 범죄 사실을 저격하는 영상을 올린다.
궁지에 몰린 유성록은 권시현과 다시 마주하고,
부아가 치미는 얼굴을 하다 이내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린다.
자신만의 감정 조절법으로 냉정을 되찾은 유성록은
의외의 싸움 실력으로 권시현과 대치한다.
여러모로 당황한 권시현이었지만 제압에 성공하고,
유성록을 법의 심판대로 보내는데 성공한다.

CHAPTER. 7

유성록을 체포한 EEJ팀은

그로부터 얻어낸 정보로 남은 연합당의 일부도 체포하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훈구파와 성록파를 모두 해치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합당의 잔당이 고월 시내에 우글거리고 있었다.

얼마전부터 고월시에 새로운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도 들려왔다.

그러던 중, 증발했던 연합당의 보스 권철이 EEJ의 사무실에 나타난다.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모두가 놀라는 와중 권철은 자신이 모습을 드러낸 이유를 밝힌다.

본래 팍팍한 세상살이를 피해 즐거움을 쫓아 만든 고월연합당이었지만,

이제는 너무 멀리 왔으며 자신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을 깨닫고 사라졌었다.

하지만 그또한 책임 회피란 것을 깨닫고 본인 손으로 돌이키기 위해 나섰다는 것이었다.

자취를 감춘 뒤로도 훈구파와 성록파를 차례로 잡아들인

EEJ팀의 소식이 귀에 들어왔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협력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예상치 못한 만남과 대답에 전원 선뜻 입을 열지 못하던 와중

권시현은 당신은 한참 늦었으며, 항상 어중간했다고 일갈하며 사무실을 나간다.

하지만 권철의 정보가 실제로 연합당의 잔당을 잡아들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이지태의 권유로 인해 권시현은 다시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권시현은 어린 시절 권철이 본인을 훈련시킨 바닷가를 거닐면서

용병 생활이나 EEJ 팀에 들어와서 연합당과 싸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폭력에 의한 정의관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어째선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이에 권철은 사람 사는 세상이란 게 옳고 그르다는 판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이 뒤섞인, 혼탁한 회색지대이기 때문이라는 두루뭉술한 답변을 남긴다.

이후, 연합당의 마지막 잔당의 거점을 찾았다는 권철의 말에 EEJ팀 전원이 움직인다.

의외로 손쉽게 승리하고 기쁨에 젖은 이지태에게 돌아온 것은 서준갑의 조소였다.

지금까지 싸운 것은 연합당의 일부에 불과하며, 연합당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서준갑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돌변한 권철과 함께 EEJ 팀을 상대한다.

예상치 못한 전개와 서준갑과 권철의 상정 이상의 전투 능력에

EEJ 팀은 전원 쓰러지게 되고, 권철과 서준갑은 집에 불을 지른 채 장소를 벗어난다.

CHAPTER. 8

간신히 불타는 집에서 탈출한 EEJ 팀은 상황을 파악하려 나선다.
고월시 시민들을 일일이 찾아가며 권철의 지난 행적을 뒤져본 그들은
서준갑이 권시현이 떠난 뒤, 그 대신으로 권철에게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서준갑이 처음부터 EEJ팀에 자진하여 참여한 것을 두고 이지태는 권철의 목표가
처음부터 연합당의 훈구파와 성록파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추리한다.
팀장은 이전에 잡아들인 훈구파와 성록파의 직원을 만나 조직원 중에서도
권철과 접촉하는 듯한 인원이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한다.
또한 권시현은 권철이 연합당 보다 비밀스러우면서 강력한 조직을 꾸리고자 했다면,
최근 기승을 부리는 마약 범죄에도 그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고 직감한다.
권시현의 직감대로 권철은 고월시 마약 범죄를 쥐고 있었으며,
본인도 약을 통해 고령의 나이에 강한 무력을 보유했다.
권철의 부하들의 뒤를 쫓은 끝에 이지태는 서준갑을 다시 만났고
싸움 끝에 승리한 그는 서준갑의 인정과 함께 권철의 목표를 들을 수 있었다.
권철의 목표는 음지의 폭력과 양지의 권력을 손에 쥐는 것이었다.
권철은 유성록 보다는 야망이 커서, 우선은 EEJ팀을 죽이고 공을 뺏으려 했다.
나아가 비밀 범죄조직과 대중의 인기를 기반으로
정치인을 수족처럼 부리는 정치계의 조정자가 되기를 갈망했다.
그 시작으로 경기도의 분도 개편에 맞춰, 입지가 애매한 고월시의 향방을
자신의 배후가 될 정당의 이득에 맞춰 조정하려는 게리맨더링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러한 계획을 알고 권철의 앞에 나타난 권시현은
약을 너무 해서 정신이 나갔다고 핀잔을 주지만 권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도, 문화도 변하지만 정치는 변하지 않았다면서 쓰임이 다하면
피붙이라도 토사구팽당하는 것이 섭리라고 말하며 직접 끝을 내주겠다고 말한다.
자신의 아들을 적수로 인정한 권철은 약에 의존하는 싸움이 아닌,
단련한 무술로 직접 끝을 내고자 무기인 공봉을 꺼내든다.
격렬한 사투 끝에 권시현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상처가 컸다.
시간이 지나고, 추억이 담긴 바다를 거닐면서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와서야
그 시절을 그리워했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린다.
그러다 조다정이 느닷없이 나타나자 황급히 눈물을 닦은 뒤,
도망친 서준갑과 연합당 잔당 퇴치 회의를 위해 EEJ 사무실로 돌아간다.
이때 본래 토사구팽하려고 했던 조다정에게 도움이 더 필요하게 됐다고,
그에게 친구라고 부르면서 이야기가 끝을 맺는다.